# 그린볼트 왕이 만든 보물의 방

Green Vault:
The King's Treasure Chambers

린볼트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컬렉션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그린볼트라는 명칭은 궁전 천장이 녹색으로 도장되어 있던 데서 유래합니다. 그린볼트는 아우구스투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작센 선제후들의 보물을 보관하는 비밀창고의 역할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1729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지금과 비슷한 모습으로 완성시킨 그린볼트는 18세기 당시에도 유럽에서 가장 큰 왕실 컬렉션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그린볼트의 성격을 보물창고에서 전시 공간으로 바꾸어 대대로 내려온 컬렉션을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상에 따라 상아, 청동, 은, 도금은 등 작품의 재질별로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소장품을 방별로 나누어 전시했습니다. 이러한 전시 방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유럽 왕실 가운데 처음으로 이 보물의 방을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또한, 소장품 목록을 만들어 컬렉션이 궁정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볼트는 유럽 최초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en Vault is a unique historic museum created by Augustus the Strong to display his impressive collection. The name is derived from the green paint of the palace ceiling. These treasure chambers represented the king's power and wealth and directly bore witness to his keen interest in and passion for art. The location used to be a secret vault where the Electors of Saxony kept their treasures. The Green Vault was completed in a state similar to its present form by Augustus in 1729 and gained reputation for holding the richest royal collection in Europe even in the 18th century.

Augustus transformed the Green Vault from a private treasure chamber to a museum to organize his inherited collections. Each display room was to be devoted to certain materials such as ivory, bronze, silver, and gilded silver. Such a method of display was highly innovative at that time. These chambers were the first in Europe to actually be open to the public, though it was a regulated visit. Augustus made inventories of his valuables to aid in their management and to prevent their bing lost. These aspects render the Green Vault a certain claim as Europe's first museum.



상아의 방은 18세기 그린볼트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두번 째로 만나게 되는 전시실이었습니다. 1729년 상아의 방 내부 벽면을 이탈리아산 대리석을 모방한 무늬로 장식하고 몇 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상아 조각품 300여 점을 전시하였습니다. 대부분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작센의 선제후들이 수집한 이 작품들은 원래 드레스덴 '호기심의 방'의 주요 소장품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작품들을 그린볼트로 옮겨와 새롭게 배치하였습니다. 상아는 희귀할 뿐 아니라 매우 섬세한 재료였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데에는 고도의 주의력과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아의 터닝 세공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왕실의 교육에서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작센의 선제후들이 직접 세공한 상아제품도 지금까지 그린 볼트에 남아 있습니다.

The Ivory Room was the second display room 18th-century visitors saw at the Green Vault. There was no specific use for this room even when decoration of its walls was complete in 1729 and done in imitation of Italian marble patterns. Several years later, it came to hold some 300 objects turned and carved in ivory and of various sizes. Most were collected by Saxon Electors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nd comprised a major portion of the collection in the Dresden Kunstkammer (Cabinet of Curiosities). Augustus moved them to the Green Vault. Ivory was rare and extremely delicate, requiring the utmost care and unbounded patience when making it into a piece of art. Ivory-turning had been an important part of the princely education since Renaissance and ivory works made by Saxon Electors still remain in the Green Vault.



# 정동의병

#### Bronze Room

청동의 방은 바로크 시대에는 입구이자 출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수리와 증축을 거치면서 그린볼트 박물관의 마지막 방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옻나무 패널과 거울로 벽을 장식하였고, 방 전체에 선반과 받침대를 놓아 그 위에 파리에서 구입한 100여 점의 작은 청동상들을 전시했습니다. 이 중 많은 작품이 그리스 신화나 알레고리를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4계절, 4대륙, 4원소 등 우주적 가치를 의인화한 알레고리는 바로크 궁정에서 즐겨 사용한 주제였습니다. 즉,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왕이 신으로부터 위임받아 관장함으로써 그의 권력이 모든 국가와 대륙,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동의 방은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우주'와도 같았습니다.

This room served as both entrance and exit during the Baroque years and is now the last room at the Green Vault after several renovations and extensions. Augustus had its walls decorated with moulded oak panelling and mirrors, and nearly 100 bronze statuettes purchased in Paris were displayed on consoles as well as on ledges surrounding the room. Many of them depicted characters in Greek myths or allegories. Allegories that personified cosmic values like the four seasons, four continents, and four elements were a favorite theme at courts of the day. They signified that God had entrusted the cosmos to the kings' care and thereby their power covered all nations, continents, and eventually the entire world. In this sense, the Bronze Room functioned as a "microcosmos" that represented the King's power and prestige.



### 도금은의 방 Gilded Silver Room

도금은(鍍金銀)의 방은 16세기 후반까지 기념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17세기후반부터는 왕실 소유의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방의 벽면에는 1723년 그린볼트가 처음 건축될 때부터 거울과 녹색 패널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18세기도금은의 방에 전시된 작품은 1733년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지시로 작성된 소장품목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후기 바로크 양식의 조각상 50여 점을 포함하여 금속세공장인이 만든 약 300여 점의 작품이 250여 개의 콘솔 위에 전시되었습니다. 이 중 3분의 2이상은 7년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 때문에 녹여졌습니다. 오늘날 전시된 작품들은 1772년당시 파괴를 면한 작품뿐 아니라, 그 뒤에 수집한 후기 바로크 양식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room was used to host celebrations until the latter half of the 16th century and came to store statues and other national treasures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Its walls were decorated with mirrors and green-painted panels from the first phase of construction of the Green Vault which began in 1723. The items that were displayed in this room in the 18th century can be learned from an inventory drawn up according to Augustus' instructions in 1733. Some 300 works made by goldsmiths, including some 50 Late Baroque statues, were displayed on 250 consoles. More than two-thirds suffered the same fate as the silverware after the Seven Years' War. Today's exhibits include those saved from the 1772 melting as well as other Late Baroque objects collected since then.



18세기에만 존재했던 은의 방에는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소장한 후기 바로크 양식의 은세공품이 진열되었습니다. 1733년의 목록에는 총 377점의 은식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3세와 신성로마제국의 황녀 마리아 요세파의 결혼을 기념 하기 위해 1719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의 바닥과 벽에 장식된 식기는 총 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할 정도로 그 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7년 전쟁(1756~1763) 이후 재정난이 심해지자, 17세기 조각상 세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녹여 동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3점의 작품으로 당시 은 소장품의 원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은의 방은 다른 소장품을 함께 전시하면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6년에 그린볼트박물관이 새롭게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되면서 본래의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The Silver Room had only existed in the 18th century. It displayed on its walls silver artworks in the late Baroque style from Augustus' collection. The 1733 inventory includes a total of 377 pieces of silverware, most of which were purchased before 1719 to celebrate the marriage between his son Augustus III and Maria Josepha, daughter of the Holy Roman Emperor. The numerous pieces of silverware that decorated the room's floor and walls weighed nearly a ton.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the Seven Years' War (1756–1763), all were melted down to mint coins except for three 17th-century statues, which still remain to shed light into what the silver collection must have been like at its height. The room's name changed as it came to display ther types of items together, but regained its original name when the Green Vault as the Baroque treasure chamber was reconstructed in 2006.



## 금은보화의 방과 코너캐비닛

### Pretiosa Room and Corner Cabinet

금은보화의 방은 그린볼트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부터 존재해온 이 방은 궁전의 오랜 장엄함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연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사용 되었지만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왕의 비밀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금은보화의 방을 현재와 가까운 형태로 완성시킨 인물은 바로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영감을 받아 이 방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당시 그린볼트의 건축감독을 맡은 마테우스 다니엘 푀펠만이 황금 받침대와 거울벽을 설치함으로써, 1732년 드레스덴 궁전에도 장엄한 바로크 양식의 '거울의 방'이 탄생하였습니다.

코너캐비닛은 말그대로 금은보화의 방 내부 '모퉁이'에 위치한 16 평방미터 크기의 작은 창고 역할을 하는 방입니다. 16세기 중엽부터 그물 모양의 철문으로 금은보화의 방과 구분되었습니다. 코너캐비닛의 예술품들은 격조 있고 아름다운 녹색 콘솔 위에 전시되었습니다.

The Pretiosa Room was the center of the Green Vault and had been in existence since Renaissance to retain the palace's time-honored majesty. Initially meant for banquets, it served as a secret vault for a series of monarchs between 1586 and 1719.

The room was completed in a similar state to its present form during Augustus' reign. The direct source for its inspiration was the Versailles' Hall of Mirrors, which Augustus had seen himself. The architect Matthäus Daniel Pöppelmann installed golden decor and mirror-covered walls to create the Dresden palace's own "Hall of Mirrors" in 1732.

The Corner Cabinet is literally a small, 16-square meter storage space in the inner corner of the Pretiosa Room. A wrought iron screen has been there since the mid-16th century to separate it from the Pretiosa Room. Here works of art were displayed on beautiful, refined green consoles.



보석의 방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보석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만든 방으로, 그린볼트의 방 중에서도 가장 화려합니다. 보석은 18세기 바로크 왕실에서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아끼는 보석을 전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방 자체를 화려하고 장엄하게 연출함으로써,이 방을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방 가운데 놓인 사면 거울 기둥에 자신의 모노그램과 훈장을 배치하고 그

아우구스투스의 보석 컬렉션은 매우 큰 네 개의 붙박이 전시장 안에 진열되었습니다. 컬렉션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지만, 당시 전시되었던 대부분의 보석은 이후에 추가된 보석들과 함께 계속 그린볼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위를 식물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보물의 방을 확대 사진 기술로 재현한 전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The Jewel Room was built for Augustus the Strong to display his jewel collection and was meant to be the most dazzling room in the Green Vault. Jewelr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presenting authority and prestige at Baroque royal courts in the 18th century. Augustus wanted to show his power not only through his cherished jewels but also through the grandiose space in this room itself. The square pillars placed in the center of the room are one example of this, with every side plated with mirrors. These pillars were also decorated with the King's monogram and emblems, as well as foliage and scroll motifs.

His jewel collection was displayed in four large wall showcases in the room. Some items were replaced over time but most of the jewels displayed then still remain at the Green Vault, and have simply been added to over the years.

Green Vault's magnificent Jewel Room can be appreciated at the exhibition through macrophotographic documentation.